

보도시점 : 2026. 9. 14.(월) 06:00 이후(9. 14.(월) 석간) / 배포 : 2026. 9. 11.(금)

‘제6회 디지털 지적의 날’ 개최,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의 미래 모색

- 16일 기념행사 열려… 한국국토정보공사,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재지정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(사장 어명소)와 함께 오는 9월 16일 오후 충남 공주시 국토정보교육원에서 지적측량업계, 지방정부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「제6회 디지털 지적의 날」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.

○ ‘디지털 지적의 날’은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일(2011. 9. 16.)을 기념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협력체계를 다지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지적 분야의 대표 행사다.

* (지적재조사사업) 110여 년 전 종이로 작성된 도면 지적의 오류를 바로잡고, 전 국토를 정밀한 디지털 좌표로 구축하는 핵심 국가 인프라 사업

□ 올해 기념식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를 전담하며 측량·조사 업무 지원 등 공적역할을 수행하는 ‘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’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재지정하고, 이날 행사에서 지정서를 수여할 계획이다.

○ ‘21년 9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 도입 이후 민간 지적측량업계의 지적재조사 참여율은 5.9%에서 51.0%로 크게 높아졌고, 사업기간도 평균 2년에서 1~1.5년으로 단축됐다.

□ 최근 지적재조사사업에 인공지능(AI)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 중이며, 작년부터는 AI를 활용하여 측량 기준점을 자동으로 추출함으로써 행정력 및 예산을 절감하고,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있다.

○ 이날 행사에서는 ‘지적재조사 AI 솜품 콘테스트’도 개최하여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의 미래를 모색할 예정이다.

□ 국토교통부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은 “AI·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을 지적 재조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융합하여, 국민의 토지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미래 모빌리티·스마트시티의 든든한 기반이 되는 디지털 국토를 완성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부서	공간정보제도과	책임자	과 장	김태형 (044-201-3480)
		담당자	사무관	손기열 (044-201-4657)
		담당자	주무관	박아현 (044-201-4659)
담당부서	한국국토정보공사 (지적재조사처)	책임자	처 장	채국헌 (063-713-1440)
		담당자	팀 장	김경원 (063-713-1445)
		담당자	과 장	가명석 (063-713-1447)



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
MOVE TO TOMORROW

재조사사업의 성과확산을 위한

제6회 디지털 지적의 날

일시

2026년
9월 16일(수)
14:00 ~ 17:00

장소

LX국토정보교육원
(충남 공주)

대강당

14:00 ~ 14:15 등록 및 접수

14:15 ~ 14:20 내빈입장

14:20 ~ 14:40 기념식
주제영상 시청
기념사(국토도시실장)
환영사(LX사장)
축하영상(국토교통위)

14:40 ~ 15:05 유공자 표창 시상 및 기념촬영

15:05 ~ 15:10 책임수행기관 지정서 전달식

15:30 ~ 16:20 「K-A시티 정책방향 및 실행전략」 이병재(국토연구원)

16:20 ~ 16:45 지적재조사 AI 솔루션 콘테스트 수상작 시청

16:45 ~ 17:00 총평 및 기념촬영